

SCD elixir



건강한 웃음이여, **[활짝]** 피어나라!
 약을 만들기 전에 희망을 먼저 만듭니다!



숙취해소와 감기에방에 좋은

감

감은 예부터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몸에 흡수된 알코올의 산화 분해를 도와주는 과당과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갈숨이 풍부해 이뇨작용에도 효과적이며, 카로틴과 비타민 C가 껍질의 두 배나 들어있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겨울에는 귤감을 주로 먹는데 오래전부터 기침이나 딸꾹질, 숙취해소를 위한 민간약으로 쓰여 오기도 했다. 이밖에 감의 떫은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설사를 멎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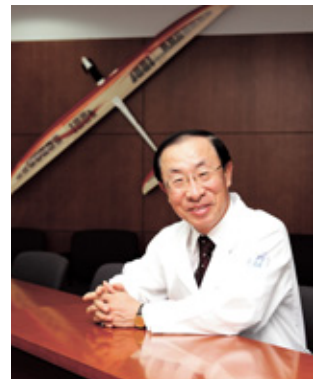
tip.. 감원차에는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 비타민 C가 풍부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섭취하기에 그만이다. 물을 100ml 끓인 후 70°C 정도로 식힌 후 말린 감잎 2~3g을 넣고 15분 정도 우려 후 매실청이나 유자청을 넣어 마신다.

엘릭시르(elixir) : 不老不死의 만병통치약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SPECIAL THEME

세계를 향해 화려한 날갯짓을 준비하는 현대문학

- 06 | **Special Theme I** _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
- 10 | **Special Theme II** _한국 현대문학의 가능성
- 14 | **Special Theme III** _글로벌 시대에 한국문학이 나아갈 길
- 18 | **이 시대의 명의** _을지대학병원 박주승 병원장
- 21 | **전통문화 지킴이** _중요무형문화재 악기장 고희근 씨
- 24 | **세계 예술 기행** _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F MOMA
- 30 | **자연을 닮은 집** _뒤란이 있는 집
- 34 | **미술 이야기** _빛으로 사랑을 그리다, 렘브란트
- 38 | **명사의 책 읽기** _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체인징 마인드> <플로우> <몰입의 경영>
- 40 | **헬스 & 라이프** _갈수록 진화하는 겨울감기 내치기
- 42 | **Power of SCD** _영업기획 · 관리팀
- 44 | **의학 클리닉** _남는 지방으로 주름을 없애는 미세지방이식
- 47 | **Samchundang News**



Cover Story
<야경>은 당시 형편없는 그림으로 평가받았다.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들은 완성된 자신들의 모습이 실물보다 멋있고 또렷하게 나오길 원했는데,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어둠 속에 묻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야경>은 렘브란트 특유의 명암법을 볼 수 있는 훌륭한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야경> 1642, 유화, 363x438cm, 암스테르담, 레이크스 국립미술관



세계를 향해 화려한 날갯짓을 준비하는 현대문학

문학은 척박한 우리의 영혼에 꿈과 희망을 주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화려한 예술장르와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문학은 고루하고 낡은 예술로 주저앉은 느낌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일은 아니다. 우리 한국문학은 가장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인 소재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진주 같은 가치를 빛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Special Theme I ::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

Special Theme II :: 한국 현대문학의 가능성

Special Theme III :: 글로벌 시대에 한국문학이 나아갈 길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

글_ 임현영 한국문화평화포럼 회장, <에세이 플러스> 주간



문학은 우리 삶 깊숙히 녹아내린 영혼의 진주 같은 존재이다.

문학이란 영혼의 진주이다. 진주란 조개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분비물의 응고이듯이 문학이란 고뇌의 꽃 위에 맺어진 열매이다.
고뇌가 없는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다.
고뇌가 없는 문학은 오락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타락의 예술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학은, 이 시대 어떤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낙 원으로부터 인간이 추방당한 그 순간이 바로 문학의 탄생 원년이 된다. 문학은 영원히 낙원을 그리워 하지만 지상에서의 어떤 약속이나 행복한 삶도 거기에 머물러 만족을 누리는 때가 될 수는 없다. 문학은 때가 될 수 없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행위이다.

문학은 영원히 인간의 고뇌와 고독과 불행과 불의에 대한 갈등과 모순의 아픔을 앓는다. 그러기에 문학은 온갖 악이나 불의, 불평등, 부당함 등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문학은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적 삶을 보장하려는 의지이다.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 전해지는 문학의 아름다움

문학이 감동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삶 그 자체 즉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그리기 때문이다.

문학은 결코 설교해서는 안 된다. 설교는 종교인에게 맡기자. 문학은 결코 선동해서도 안 된다. 그건 혁명가나 정치가에게 남겨주자. 그러면서도 문학은 가장 묵직한 목소리로 가장 감동적인 설교를 하며, 가장 강력한 웅변으로 가장 적절하게 선동하며 선전한다. 그건 바로 예술적 형상화, 즉 예술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술미란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문학에서 아름다움이란 아래와 같은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서정적이어야 한다. 위대한 문학이란 웃기거나 울리거나 숙연해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영화나 연극, 드라마 등 모든 예

술을 보고 실컷 웃거나 울거나 가슴 뭉클해지면 누구나 '멋진 작품'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문학은 한 시대의 아픔을 대신 말해주는 '민중의 대변자'란 말도 있다. 시나 소설을 읽어도 '나' 자신의 고뇌, 나의 아픔이 스며있지 않으면 덮어버려도 좋다는 말은 이래서 등장한다.

다음으로 가치 이월(移越, Transference of Values), 즉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모든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작품을 읽고 내 후손에게 물려줘도 좋다고 생각되면 그게 걸작이다. 오늘의 나에게 는 재미있으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에는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건 특정한 한 시대의 유행물이지 명작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적으로 인본주의 원칙, 휴머니즘의 기본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독재자나 전쟁이나 살육 등 비인간적인 걸 찬양하는 글은 훌륭한 문학이 될 수 없다. 남들은 다 고통에 허덕이는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도 걸작이 될 수 없다.

노마드의 21세기, 그 문학적 특징

위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의 한국문학을 보면 제대로 굴러간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위의 3가지 조건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아름답고 고상한 문학보다는 타락한 작품이 더 성행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그런 걸 오히려 즐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감동이 후손에게 물려지는 문학작품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걸작이 되는 것이다.



위대한 문학이란 웃기거나 울리거나 숙연해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영화나 연극, 드라마 등 모든 예술을 보고 실컷 웃거나 울거나 가슴 뭉클해지면 누구나 '멋진 작품'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문학은 한 시대의 아픔을 대신 말해주는 '민중의 대변자'란 말도 있다. 시나 소설을 읽어도 '나' 자신의 고뇌, 나의 아픔이 스며있지 않으면 덮어버려도 좋다는 말은 이래서 등장한다.

겨 찾는 야합 속에 젖어있다. 또한 요즘의 베스트셀러란 몇 년 지나면 속들어 가버리는 일회성이 많아 그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많다. 휴머니즘 정신 역시 적극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문학의 역할은 슬그머니 영화나 드라마에 다 맡겨버리고 문학은 시대의 고뇌와 동떨어진 처지가 된 느낌이다. 물론 오늘의 문학이 다 그렇지는 않아서 걸작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의 한국 문학은 어제의 영광에서 빛 바래져버렸음은 부인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문학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인류 역사가 급변한 이 시대를 흔히들 '노마드(nomade)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노마드란 '도시 유목민' 화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 저기 유목민처럼 떠돌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지구촌은 7백만 이상 도시가 5백 개 탄생하며, 3백여 국가로 나뉘지고, 청소년이 30억(전 인류 80억), 평균수명은 120여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는 문학조차 이대로 일 수는 없도록 압박한다.

우리나라만 봐도 해외 동포가 7백만, 연도별 해외여행자의 급증, 연간 외국인 입국자 6백만, 약 20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30만 명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구조도 노마디즘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마드 현상으로 말미암아 최근 한국문학은 고향을 노래하는 작품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기행체 소설, 기행 시, 기행수필이 대유행하며, 가족 해체를 기본적인 정서로 삼게 되었다. 고향과 가족은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애송되었던 문학의 노란 자위였는데 이젠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윤대녕의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만난 지 3시간 만에 러브호텔에 들어갈정량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는 말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며, 권지예의 주인공들은 어떤 강력한 애정도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이 아닌 '동거 형태의 삶'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주인공들은 부부로 살면서도 장기간 옛 애인과 동거하다가 귀가하곤 하는데, 이런 형태의 가족윤리는 바로 노마드적인 삶의 한 단면일 것이다.

요즘 소설들은 가족이 분해 되어버린 원인이 어머니의 원인 모를 가출에서 찾고 있다. 그 이전 소설들은 어머니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가난해서이거나, 애정의 결핍 혹은 부부의 성격차이라는 등등의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만큼 현대인의 정신구조는 복잡해진다. 의식주의 해결에 구애받지 않기에 인간의 고뇌와 불행의 극복방법도 달라져 버린 것이다. 이

런 유형의 인간을 그리는 문학이 요즘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너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층 노마드의 비참상

이런 노마드 문학현상이 '상류층 노마드'라면 하류층 노마드는 어떨까. 하층 노마드에 작가들의 시선은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늘어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략 30여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세계적으로는 1억5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주로 제3세계 나라의 유이민으로 이뤄진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현상은 노마드 사회가 상류층이 주도하지만 하류층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일깨워 준다.

이런 국제적 노마드와 결부해서 국내적 노마드 현상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쓰기 시작한 '홈리스족' (중앙일보 1.20.)이란 술어가 극빈층만이 아닌 30~40대의 화이트 컬러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하류층 노마드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세계화란 곧 노마드의 다른 한 측면이며, 21세기의 신제국주의의 출현은 이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노마디즘은 환경생태계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즘 문학은 점점 상류층 지향으로 변모할 뿐 하류층에는 시선을 주지 않아 못내 아쉽다.

한국문학의 오늘

21세기가 '다성욕(polysexuality)' 시대, 즉 '개인 들만큼 많은 성'을 인정하는 윤리를 뜻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낡은 윤리는 급격히 붕괴된다. 페미니즘 세례 이후 세대의 소설들(공지영, 신경숙, 전경린 등)은 여성의 평등권 획득을 위한 투지의 단계를 지나 원초적이자 전위적인 성문제로 그 초점을 바꾸고 있다. 30대가 대중소설의 주류를 형성하는 이유는 비단 이 연배(30~39세)가 전체 이혼 중 51.5%라거나, 결혼 기간 2~5년 사이가 이혼자의 46.6%며, 배우자 부정이 그 원인의 40.7%라는 따위의 통계에서도 체감케 하는데 요즘은 점점 이혼 연령이 내려와 20대에도 성행하는 추세다.

이런 심각성에 반비례하여 우리문학은 노인문제를 심각한 주제의 하나로 부상시키기 보다는 외면하는 쪽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한국의 노인 주제 소설은 주인공들의 연령 하강 추세와 에로티시즘에 밀려 정년퇴직을 당한 듯이 독자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문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현대 민족사의 비극과 지난 세기에 겪었던 식민통치와 부당한 독재체제가 빛은 과거사 청산의 문학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분단소재 문학은 2000년 6.15 남북 정상 역사의적 만남 이후 분단극복 통일 지향문학이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될 처지였는데, 황석영의 <손님>과, 손석춘의 <아름다운 집>이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지만 그 뒤를 잇는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문학은 시대의 요구보다는 향락적 감각에 초점을 맞춘 채 환각에 빠져있는 느낌이다. ☹

한국 현대문학의 가능성

멀티미디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학이 추구하는 철학을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자리 내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우리 한국문학이 나아갈 길은 멀고 그 가능성 또한 창창한 것이기에 긍정적인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글_ 박철화 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공 지영의 장편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수십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몇 주째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지키고 있다. 소설이 다른 장르의 책들을 제치고 종합순위의 맨 꼭대기를, 그것도 몇 주씩이나 차지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다지 낯선 현상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난 수년 간 이런 일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

독서시장에서 문학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성장한 우리 출판계지만, 문학 출판만큼은 사정이 편치 않다. 다른 분야의 상대적 성장과 반비례해서 문학의 몫이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지영 붐(?)도 그것이 독서대중의 문학으로의 회귀로 이어지기보다는, 같은 이름의 영화의 선전에 힘입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소설은 '사형제도'라는 묵직한 주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문학적 성취도의 차원에서 그다지 뛰어난 것은 아니며, 공지영의 다른 장편소설이 그러하듯이 대중적 코드가 많이 들어 있는 작품이다.

그런 대중적 면모가 강동원과 이나영이라는 연예계의 두 청춘스타가 등장하는 영화의 성공과 맞물려 대중들의 관심을 잠깐 끌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것은 문학의 승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영화의 승리라고 보아야 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문학 영역의 변화

이 예에서 보듯 디지털 문명의 개화와 함께 더욱 거세진 영상문화 앞에서 문학의 영역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학이 인간 존재와 세계와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렌즈는 아니니까 말이다. 또 문학의 상대적 위축이 꼭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자국어와 문학에 대한 사랑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기 싫어하는 프랑스에서도 문학의 광휘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한다. 이전과 비교하여 문학 독자가 줄어들고, 대중들, 특히 젊은이들의 문학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는 관찰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세계 제일의 출판 대국 일본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몇몇 작가에 대한 열광 뒤편에서 대부분의 문학은 소수 마니아들의 전유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 빈 자리를 영화, 만화, 게임, 인터넷 등이 채우고 있다. 문학으로부터 영상으로의 이동은 이와 같은 전지구적 문명의 대세이며, 가치 판단 너머의 일인 것이다.

그러니 문학의 위기와 같은 담론은 사실 별 의미 없는 호들갑일 수도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아직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했다. 프랑스어가 중세 이후
500년 이상의 실험을 거쳤고, 영어 역시
세계 도처에서 수백 년의 실험을 거친 것에
반해, 한글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글이 가진 언어로서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한국문학의 존재이유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영상 문명의 개화와는
별도로 우리의 한국문학은 아직은 더
보호받고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딘 고디머는 몇 년 전 베를린 영화제 개막연설에서 지금껏 우리는 언어로 철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영상으로 철학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학
언어가 해오던 일들을 다른 분야가 대신 맡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재앙은 아닌
것이다. 문자 역시 변두리의 신출내기였다가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
았던가. 그러니 문학으로부터 영상으로의 중심 이동은 세계가 여기까지 변화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변화의 한 내용일 뿐이다.

변화 속에서 더 큰 꽃을 피워야 할 우리말 우리문학

물론 한국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한국문학은 우리에게 문학
에 한정되지 않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말로 문학을 할 수 있었던 역사는 길지
않다. 19세기까지는 문어(文語)와 구어(口
語)가 한자와 우리말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
고 이어진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는 우리말
로 문학을 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 우
리가 문어와 구어의 단절을 벗어나 우리말
로 마음껏 문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45
년 해방과 함께 불과 60여 년 정도 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일제의 지배 아래서도 좌절

하지 않고 결국 독립된 국가를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언어의 영토만큼은 잃지 않고 지킨 덕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말은 민족과 국토의 상징이다.
그 말을 사용한 한국문학이 지적 엘리트의 필수장비
로서 현대사 내내 계몽의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글은 놀랍도록 과학적인 문자체계다. 세
계의 뛰어난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찬
탄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아직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했다. 프랑스어
가 중세 이후 500년 이상의 실험을 거쳤고, 영어 역
시 세계 도처에서 수백 년의 실험을 거친 것에 반해, 한글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글이 가진 언어로서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한국문학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영상 문명의 개화와는 별도로 우리의 한국문학은
아직은 더 보호받고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자의 지위 자체가 약화된 현대사회에서 한국문학이 특별한 지위를
누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누렸던 지위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순수 한글세대라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
진 4·19세대의 이청준, 김승옥, 김원일과 같은 우수한 지적 자원이 문학으로 몰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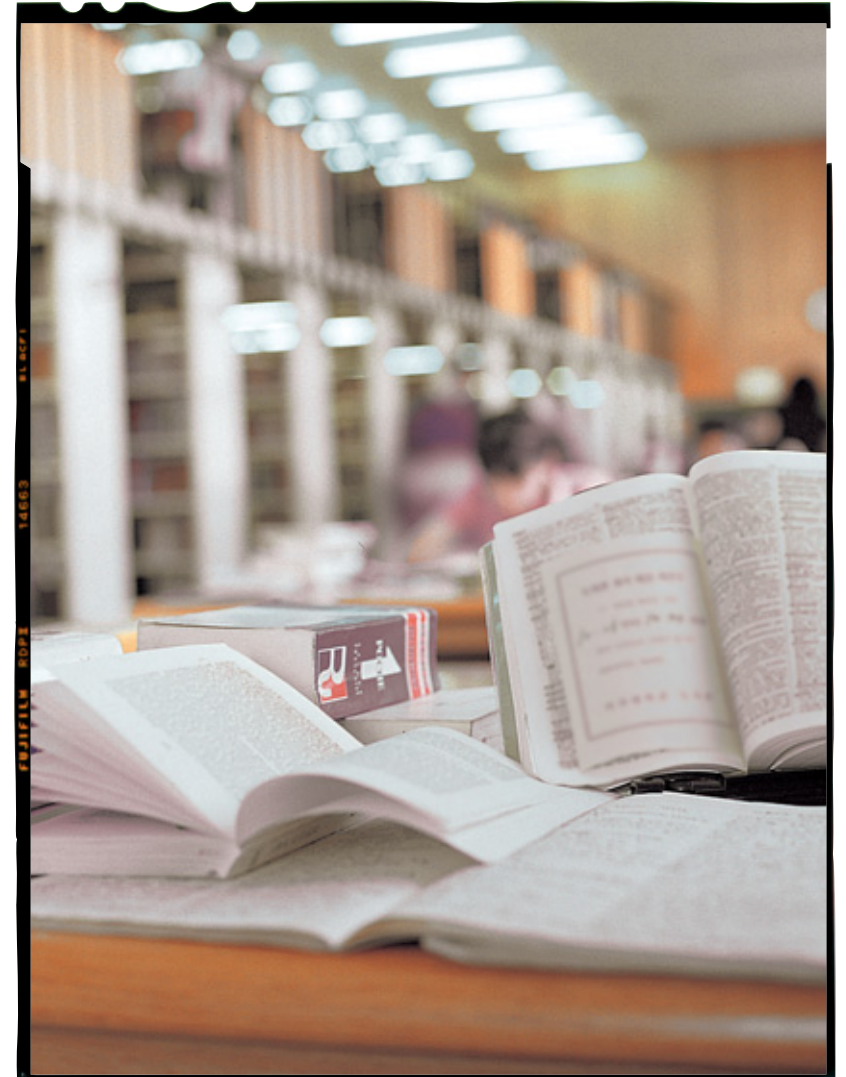
또 해방 조국의 열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박완서,
최인훈, 이어령 같은 작가의 탄생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난 70·80년대처럼 문학이 사회
적 언론의 유일한 대변자로서 지성의 전당 역할을
하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성장한
만큼 분화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적자
원들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와 세계와 우리들
의 삶에 대해 분석하고 명명하는 일을 이미 뛰어나
게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의 한국문학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성장에 비추어
보면 어딘지 모르게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
지의 관습적인 문학으로는 존속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것이다.

변화와 다양성을 품어야 할 한국문학의 미래

그렇다면 한국문학의 소생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
것은 한국문학이 익숙한 성채로부터 뛰어나와 다
른 분야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문학적 비유를 쓰자면, 변두리 형식들로부터 새로
운 피를 수혈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
다. 역사, 과학, 경제, 정치에서부터 세세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문학적 소재를
공급받을 때가 되었다. 현대사회의 대중은 문명의
엄청난 물리적 변화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사유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한 성찰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문학은 문명의 변화와
함께 가면서 그 변화의 의미까지를 언어로 명료하
게 드러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
이다.

사실(fact)과 허구(fiction)가 결합된 팩션, 사이
언스 픽션, 기업소설, 판타지 소설 등의 장르 문학
의 가능성을 끌어안으려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다. 새로운 소재와 전래의 문학적 사유와 상상력을
결합시키는 일, 나는 그것이 21세기 한국문학에 주
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문학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창피스러
울 만큼 가벼웠다. 무거움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대와 함께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리고 한국문
학은 그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짊어지
고 왔다. 문제는 그 무거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쏘



국내 출판계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한국문학의 성장 속도는 더디지만, 그 때문에 21세기 한국문학이 풀어야 할 숙제는 우리에게 의미가 큰 것이다.

아져 나온 경박함이다. 세계 없는 개인, 대상에 대한 성찰이 없는 절대화된 욕망,
거시적 전망이 없는 소소한 일상, 세상에 등을 돌린 못난 자의 내면만으로는 언어
의 집을 지을 수 없다. 문학은 존재와 삶에 대한,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질문이다.
아무리 가벼워도 이 질문자로서의 역할 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문학, 특히 우리 소설은 이 질문자로서의 역할에 소홀
했다. 독자에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고통의 축제'를 펼쳐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문명의 변화에 자기 몸을 내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의
변하지 않은 본질적 속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21세기 새로운 문학을 찾아야 한
다. 한국문학이 아니고서는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명료한 언어로 물을 것
인가.

그러니 이제야말로 한국문학은 미적 현대성이라는 영원한 질문과 싸워야 할 때
다. 그리스의 <울리시스>와 <오딧세이>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대화의 상대가 되
듯,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변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의 결합으로서의 우리
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 이 시대의 보편적 서사시를 지어내는 일이 한국문학에 과
제로 주어져 있다. 📖

글로벌 시대에 한국문학이 나아갈 길

얼마 전 노벨문학상 후보에 고은 시인이 오르면서 우리문학이 세계에 광휘를 떨치는가 하는 기대감에 고무되었던 적이 있다.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에게 그 상이 수여됐지만, 잠시나마 우리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젠 한국문학도 성숙된 모습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

글_ 김성곤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 및 하버드대 객원교수



우리는 지금 타자와 공존하고 타문화를 포용하는 시대, 그리고 사물의 경계가 소멸함에 따라 여러 문화가 서로 뒤섞이는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문화보다는 복합문화, 그리고 순수문화보다는 잡종문화(hybrid culture)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와 다른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아직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단일민족·단일문화의 환상에 빠진 채,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리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우수하고 순수한 혈통이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가르친다. 자기 조국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물

론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와 과장된 사실을 통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은 분명 유치하고 잘못된 것이다.

식민지 경험과 분단을 비롯한 비극적 역사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는 과도한 민족주의와 단일 혈통주의에 사로잡혀, 타자를 인정하거나 타자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사실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약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지적처럼, "이 세상에 순수한 단일문화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 역시 중국문화와 일본문화를 떠나서 순수한 단일문화로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유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글로벌 마인드 갖춰야

세계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버린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계문화 속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되, 타자의 문화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즉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문학은 어떻게 해야 세계문화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한국작가들은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

되고 있으며, 해외작가들은 어떤 주제의 작품들을 쓰고 있는지를 늘 면밀히 살펴야만 한다.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한 작품들을 써야 해외작가들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공동의 화제가 생겨나며,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작가들은 부지런히 동시대 해외작가의 주요작품들을 읽어야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연구나 다문화주의나 포스트식민주의 등 현대문학이론의 흐름도 공부해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요즘은 문학이론과 문예사조가 문학작품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작가들이 해외 문학행사에 적극 참가하거나, 국내 문학행사에 초청되어 오는 외국작가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교류해야만 한다. 예컨대 시인 고은과 소설가 황석영은 해외 활동이 활발해서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이다. 물론 외국에서 활동하거나 외국작가들과 교류하려면 영어나 기타 현지어를 잘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작가들 중 외국어를 자유



훌륭한 한국문학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 번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롭게 구사하는 작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이 한국작가들을 세계에 알리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외에서 각광받고 자주 초청받는 이유 중 하나도 그가 외국작가들이나 독자들과 영어로 교류하고 강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 해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오늘의 현실이다.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개발

한국문학은 이제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 세계 독자들에게 보다 더 호소력 있는 주제의 문학작품을 산출해야만 한다. 예컨대 외국 독자들은 우리와는 달리, 정치적 이념 문제나 분단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얼마 전 스웨덴 스톡홀름과 요테보리에서 열린 한국문학 행사에 시인 고은과 황지우, 그리고 소설가 오정희와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다.

아침 첫 강연인 오정희 선생의 [한국문학에 나타난 페미니즘]에는 수많은 스웨덴 청중들이 몰렸다. 한국의 여성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기는

세계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버린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계문화 속에 동참하는 것이다.

대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진행된 [한국의 민족 문화와 민중문학]이라는 강연에는 청중이 별로 없었다. 민족이니 민중이니 하는 철 지난 이념에 관심이 없었던 스웨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썰렁한 강연장에서 고독하게 강연을 해야만 했던 그 불행한 연사는 바로 나였다.

한국문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작가들이 즐겨 쓰는 가정불화, 또는 남편과의 갈등이나 그로 인한 불륜 같은 사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관심사에 대한 작품들을 써내야만 한다.

예컨대 인간의 편견 문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고민하는 젠더 문제, 혹은 다문화시대의 정체성 문제, 우리 마음의 열림과 닫힘의 문제, 경계가 모호해진 진리와 허위의 문제, 정전 작품의 패러디, 그리고 순수와 오염 또는 정통과 비정통의 문제 등은 현대 작가들이 즐겨 다루는 주요 주제들이다. 한국작가들도 하루속히 폐쇄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지금 세계인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하는 광장으로 나가야만 한다.

교포문학에 대한 재조명

한국문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문학이 해외 교포문학까지도 적극 포용할 필요가 있다. 교포문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민 1세대들이 해외에서 우리말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민 2세나 3세대들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등단 작가였다가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한글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와, 이민을 간 후 문학이 좋아서 현지 교포들끼리 문인단체를 결성해 한글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두 경우 다 한국문학에 편입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와이 문인회나 뉴욕 문인회나 L.A. 문인회가 그 대표적인 예지만, 한국인들의 문학사랑은 유별나서, 해외이민을 간 후에도 대부분 현지에서 문학 동호회를 만들어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다.



한국문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다양한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포문학의 두 번째 경우는 이창래나 노라 옥자 켈러나 하인스 인수 펑클, 또는 캐시 송이나 명미 김처럼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한국계 미국작가(Korean-American writers)라고 불리지만, 더 엄밀히 분류하자면 미국 작가들이다. 그러므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이들은 한국작가가 아니며, 따라서 한국문학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학을 넓은 의미에서 한국문학에 편입시킨다면, 한국문학의 영역과 지평이 크게 넓어질 뿐 아니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꾸준히 한국을 소재로 작품을 쓰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 역시 이들을 굳이 한국계 미국작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크게 각광받고 있는 교포 시인인 명미 김은, “우리는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기만, 동시에 우리는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영어로 활동하는 교포들의 문학도 ‘디아스포라 문학’이나 ‘이민문학’ 같은 새로운 범주와 명칭을 만들어서 국문학에 포함시키지 못

하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 되는 그 날까지

한국문학의 훌륭한 외국어 번역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 또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이다. 번역의 경우, 한국어가 유창한 원어민을 역자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완벽한 원어민 역자를 발굴하거나 양성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언어에 대한 문장력이 뛰어난 원어민 역자가 가장 이상적인 역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탁월한 번역자에 드워드 사이덴스티커의 덕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작가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정신적 이정표가 되며,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작가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부단히 새로운 것을 공부하며, 끊임없이 참신한 상상력을 창조해내야만 한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이 되려면 우선 질적 수준의 획기적 향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고 유성과 보편성이 잘 조화된 호소력 있는 문학작품을 산출해야만 할 것이다. 

천생(天生) 외과의의 유쾌한 의사생활 을지대학병원 박주승 병원장

글_ 최수향 자유기고가 · 사진_ 장윤호 스튜디오 웃

병원마저 서울 중심인 현 세대에서 우수한 의료진,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역 환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병원이 있다.

지역민이 신뢰하는 병원, 향토병원의 제 몫을 다하며 도약하고 있는 병원, 그곳이 바로 을지대학병원이다. 그 중심에는 박주승 병원장이 있다.



외과의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권위자

박주승 원장은 의사, 특히 외과의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의사의 삶을 접하고 당연히 의대에 진학한 후, 외과를 선택하고 지금껏 단 한번도 외과의의 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덜하지만 내가 의대에 진학할 당시엔 외과가 인기 과였어요. 외과는 중요한 질병을 가진 급한 환자가 많은 과지만 치료가능하고 실질적이며 확실하게 회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 뒤 위암 수술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전공했는데 전공 선택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동안 위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병이 위암이었다면 현재는 나올 수 있고 완치할 수 있는 병으로 말입니다. 1990년도에 임상 적용된 복강경 수술은 개복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점에서 외과의 혁명적 수술방법이랄 수 있어요. 복강경 수술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담낭 절제술이고 복강경 담낭 절제술의 등장으로 내시경은 진단에만 이용된다는 통념을 깨고 수술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지요.”

그를 만난 날, 막 5건의 수술을 집도하고도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을 길 없이 유쾌하게 외과의의 삶과 의료방법의 발전상을 전해주는 그. 그를 말함에 있어 복강경 담낭 결석(담석증) 절제술을 빠트릴 수 없다. 그는 현재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있어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그가 을지대학병원에서 1992년 1월부터 시작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현재까지 약 4천여 건의 놀라운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수술 사망률 전무’, ‘개복률 3.5%로 국내 최저’ 등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가 단일 집도로 시행한 이 사례는 국내외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대한 치료 기준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 그에게 마침맞은 말은 바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외과의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의사는 환자의 요구와 불편을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명의철학과도 이어진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환자들 이야기를 소홀히 들은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의사는 환자의 불편,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잘 들어야 해요. 현장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내가 후배들에게도 강조하는 말인데 수술한 환자가 아프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통제 맞고 1시간 후에 다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 아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의사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요. 환자의 편에 서서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명의 또한 절대적으로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의사예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최고 수준의 의술도 물론 갖춰야 하겠지요. 거품 때문에 무수히 많은 명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그의 생각은 을지대학병원의 슬로건인 ‘당신도 을지 가족입니다’ 와도 일치한다.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환자중심의 병원

그에게 을지대학병원의 자랑거리를 묻자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4가지 구성요건을 들어 설명한다.

“첫째는 쾌적한 환경, 둘째는 진료절차의 편의성, 셋째는 우수한 진료장비 보유, 넷째는 의사 개개인의 자질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요건이 병원구성요건의 95%를 차지하고 넷째 요건은 1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첫째, 둘째, 셋째 요건에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합니다.”

첫 인상은 모든 인상을 결정한다고 했던가. 그의 말처럼 을지대학병원의 첫 인상은 쾌적



“의사는 환자의 불편,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잘 들어야 해요. 현장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내가 후배들에게도 강조하는 말인데 수술한 환자가 아프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통제 맞고 1시간 후에 다시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 아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의사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요. 환자의 편에 서서 말입니다. 명의 또한 절대적으로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의사예요.”

함이다. 넓고 깨끗한 병원 로비는 시각적인 쾌적함을 주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냄새 대신 흠뻑 들이쉬고 싶은 실내 공기는 후각의 쾌적함을 선사한다. 이런 쾌적함은 Digital Intelligent Hospital을 표방하고 중부권의 대형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건물의 온도와 환기, 채광 등을 컴퓨터로 조절하여 항상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는 빌딩자동화시스템(BAS)덕분이다.

병원이란 불편함을 오래 참아야하는 곳, 예약, 진료, 결과를 당연히 기다려야 하는 곳이란 인식에서도 진료절차의 편의성을 갖춘 을지대학병원은 벗어나 있다. 필름 없이 디지털 형태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자동처방전달시스템(OCS), 의무기록과 검체(검사)물을 비롯한 각종 자동 운송 장비인 무인반송설비시스템 등 최첨단 의료 설비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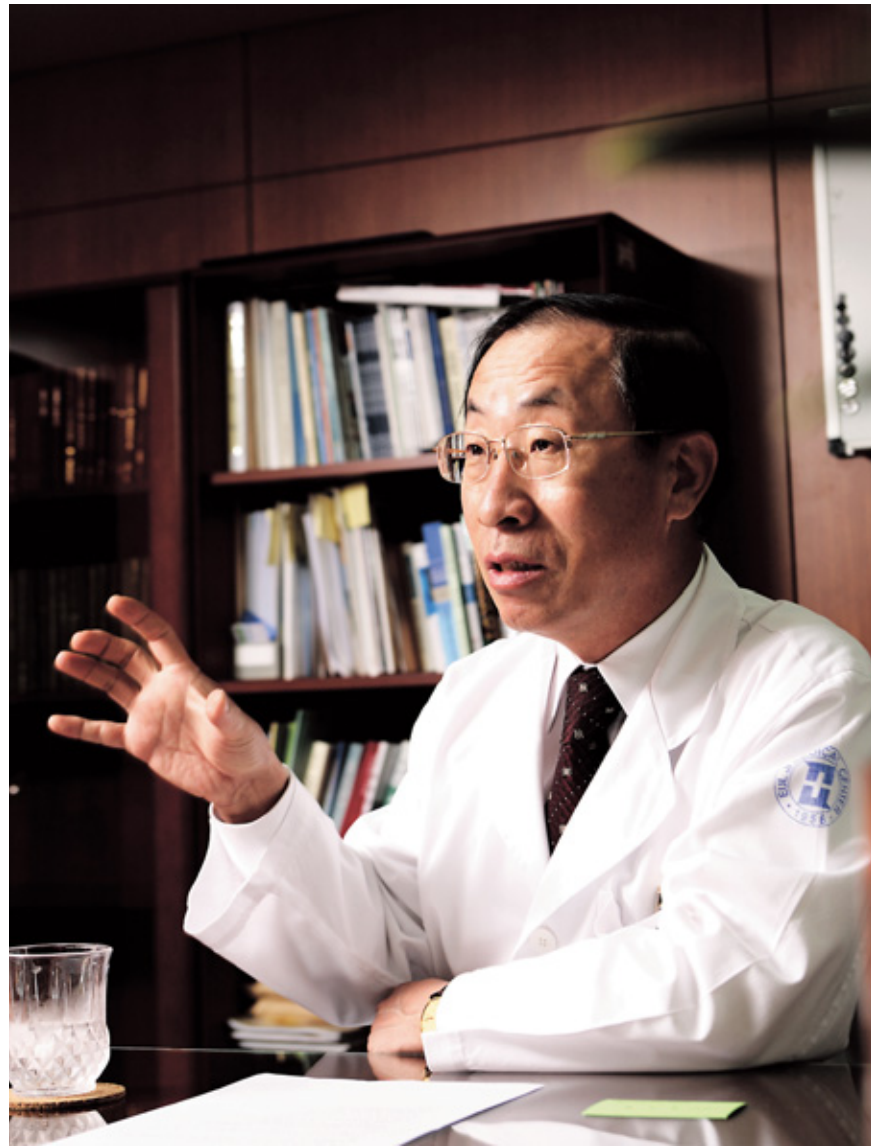
그가 말한 셋째 요건인 최첨단 의료장비보유 면에서도 을지대학병원은 최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중부권 병원 중 처음으로 도입한 최첨단 뇌수술장비인 감마나이프, 양전자 단층촬영(PET/CT),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시스템, 사이클로트론(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장치) 등을 보유하여 암의 진단에서 수술, 치료까지 암 퇴치를 위한 모든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 이로써 을지대학병원은 지역 환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서울을 찾는 일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그는 넷째 요건인 의사들 간의 차이는 실제 미미하다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병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의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마침맞은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과 의사로서의 특별한 감회를 “말기 암이라 할 수 있는 4기암은 대부분 절제하지 않는데 절제해서 완치되는 경우”라고 말하는 그. 의학의 발전으로 암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이지만 현재 의학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은 “나의 한계이기도 하고 비방은 실제로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생이 있으면 죽음 또한 있어요.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누구나 충격을 받지요. 그러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구나 하고 준비하면서 이겨내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줍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낭중지추(囊中之錐)이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이다.

“목표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 수준 이상이 되면 평가가 있고 답이 오는 것은 삶의 이치입



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업으로 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사와 병원장 역할 비중을 묻자 “외과와는 좋아서 선택하여 즐겁게 일하고 있고 병원장은 노력하고 있다”는 현답을 들려주는 그. 훗날, 평생을 외과 의사로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 자신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인터뷰도 잘하지 않는 그이기에 오늘의 만남은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낭중지추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고서 그를 찾아오게 만든 사람. 을지대학병원에 가면 천생 외과 의사일 수밖에 없는 그의 유쾌한 의사생활, 병원장 생활을 볼 수 있다. ☞

전통문화 지킴이

눈, 비, 바람, 햇살의 소리 담아낸 현악기의 고고한 울림 중요무형문화재 악기장 고흥곤 씨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그 대자연의 소리를 악기로 형상화하는 악기장 고흥곤 씨.
오동나무 베고 명주실 꼬아 만든 그의 가야금은 연주자들을 통해 천지인의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자연과 우리음악을 잇는 회랑으로서, 37년 한세월 묵묵히 서 있는 그를 만났다.

글_김지영 자유기고가 · 사진_장윤호 스튜디오 笑

작 업실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가야금이 나무인양 늘어섰다. 방바닥에 널려진 꽃모양 명주실타래와 어우러져 작은 정원을 이룬다. 무릎 위에 가야금 올려놓고 한 줄 한 줄 음을 고르는 고흥곤 씨. ‘핑핑핑’ 하는 맑은 울림은 세소리처럼 평화롭고 방안의 공기는 약수처럼 맑다. 가야금 제작의 마지막 단계를 작업 중인 그. 머리모양과 옷매무시가 한 올 흐트러짐 없다. 끝을 만지는 손도 희고 곱다. 악기장의 말끔한 외모는 긴 수염이나 장발, 개량한복, 거친 손 등 ‘장인스타일’을 정직하게 배반한다. 이에 대해 “계속 그렇게 유지 하려면 부지런해야하는데 작업할 시간도 부족해서”라고 답한다. 그나마 이발할 때도 손님이 없을 때 후다닥 다녀온다고 덧붙인다. 평생을 하고도 촛개를 쪼개 가야금을 품고 싶을 만큼 그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5년 식힌 오동나무 일일이 손으로 대패질 견뎌내
악기장은 악기를 만드는 공예기술 또는 기술자를 뜻한다. 그는 현악기장으로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을 만든다. 90년에 전수조교(준인간문화재)로 지정되고 97년에 악기장이 되었다. 그는 악기 제조분야의 첫 번째 인간문화재 김광주(중요무형문화재 42호 악기장 1906~1984)선생의 수제자로 국악기와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의 집은 바로 이웃해 있었다. 어린 시절 김광주 선생의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 가끔은 나무를 훔쳐다가 썰매를 만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 때는 이렇게 비싼 재료인지 몰랐다”며 웃는다.
어린 악동 흥곤은 훌쩍 성장하여 ‘어른’이 됐고 삼청동에 있는 김광주 선생의 공방으로 다시 오게 됐다. 유독 야물던 그의 손끝을 눈여겨 본 스승이 그의 근황을 전해 듣고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왔던

것이다. 그 후 그는 군복무 중에도 휴가 때면 어김없이 스승의 공방을 찾는 등 악기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광주 선생 역시 눈을 감으시는 그날까지 그를 지극정성으로 가르쳤다고 한다.

“악기장은 대패질 톱질은 물론 실을 짜고 꼬는 일까지 모두 합니다. 제가 처음 배운 일은 가야금을 만들기 위한 오동나무판의 대패질이요, 지금은 전기대패가 있어 편리하지만 당시만 해도 절단한 나무를 알맞은 두께가 될 때까지 일일이 손으로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해야 했거든요. 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톱이나 끌이 모두 날카로워 다치기도 부지기수고 일이 워낙 고되다보니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실과 산 속의 오동나무를 엮은 것이 마침내는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에게 가슴 펄펄 뛰는 전율을 안겨주었다. 자연 그대로의 소리가 복원되는 신비한 감흥은 그의 삶이 악기장으로 뿌리내리는 데 귀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그는 톱이나 끌이 모두 날카로워 다치기도 부지기수고 일이 워낙 고되다보니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실과 산 속의 오동나무를 엮은 것이 마침내는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에게 가슴 펄펄 뛰는 전율을 안겨주었다. 자연 그대로의 소리가 복원되는 신비한 감흥은 그의 삶이 악기장으로 뿌리내리는 데 귀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손끝에 전해오는 오감으로 맑고 깊은 '울림' 잡아내

1500여 년 전 아득한 가야로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우리민족 고유 악기 가야금. 현재에도 가장 대중적인 전통악기로 사랑받는 가야금은 그의 작업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야금을 만드는 것은 나무를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30~50년생의 참오동나무를 산지에서 구입한다. 그 나무를 짜귀와 대패로 대강의 윤곽을 잡은 후 바깥에 내놓아 눈비 맞히고 바람과 별을 맞이하면서 5년 이상을 건조시킨다. 그야말로 고행난행 풍상을 겪게 하는데, 이 과정을 그는 '삭힌다'고 말한다.

“된장도 푹 삭아야 맛이 나듯이 오동나무도 이 삭히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악기의 재료가 된다.”는 것. 약한 나무는 썩어지고 너무 강한 나무는 뒤틀려 절반정도만이 깨끗하게 살아남는다. 얼마나 잘 삭았느냐는 나무의 질감이나 색깔,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 등으로 판단한다. 나무를 켤 때도 모양을 보고 남북 방향으로 켜느냐 동서방향으로 켜느냐가 달라지는데 이때도 역시 감으로 결정한다.

“나무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기간을 자라도 나이에 따라 성격도 다르지요. 제작단계의 미묘한 차이가 완성품에서는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조건이 다 맞는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공정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연을 상대하는 일에 과학은 무의미하다. 오직 손끝에서 가슴을 직류하며 와 닿는 느낌과 오랜 세월 체득된 장인의 초감각만이 유효하다.

비파 등 고악기 복원, 전통음악의 맥을 잇다

고흥곤 씨는 악기 만들기에만 전념하지 않는다. 벽화에만 남아있는 사라진 옛 악기를 살려내는 일에도 열심이다. 그 중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산조가야금이 유행하면서 그 존재가 거의 사라져버린 법금



중요무형문화재 악기장 고흥곤 씨

을 만들어낸 것은 그의 개인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 업적으로 그는 1985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풍류가야금, 정악가야금이라고도 불리는 법금은 영산회상이나 아악과 같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가야금이다. 그는 법금을 만들기 위해 황병기 씨 등 가야금 장인들이 소장한 오래된 법금을 직접 찾아보았다. 또 문헌을 뒤지다가 일본 정창원에서 신라 법금의 치수를 그대로 소개하는 책자를 퍼냈다. 사실을 알고는 자료를 찾아 일본도 다녀왔다. 이 같은 연구 열정과 성실함이 그의 삶을 장인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가야금 연주자들은 전부 그의 악기를 쓰고 있다. 그는 국악연주회가 있으면 빠짐없이 들으러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가야금은 연주자의 연주기법 등 성향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소리가 다릅니다. 연주를 세게 하는지 부드럽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좁은 공간용인지 넓은 공연장용도인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울림을 느껴야 하거든요. 공연장의 체험은 나중에 악기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얼마 전 거의 쓰이지 않던 전통악기 비파를 만들어냈다.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고악기 복원에 힘을 계획이라고 한다. 40여 년 세월, 전통음악의 발전과 국악기의 연구와 제작을 위한 열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고흥곤 씨. 그는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자연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예술을 잇고 있었다. 📌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F MOMA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민족과의 접촉이 잦았던 항구도시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며 어우러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국 현대미술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이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건축물과 예술품, 전통과 최첨단 그리고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걸작으로 빛나고 있다.



01

미국 현대미술의 중심에 선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항구...항구라는 단어를 듣거나 떠올릴 때면 항상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것은 한마디로 함축해 표현할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아름다움의 복합체 같은 것들이다. 배가 떠나가는 바다 위에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면 그리움은 더욱 진해진다.

안개가 있어 더욱 정감 넘치고 아름다운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 이곳은 예부터 서쪽의 관문 역할을 하며 여러 민족의 문화를 흡수하여 왔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려 친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서정성이 넘치는 도시이다. 그리고 다양함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예술도 독특하고 별난 점이 많아 60~70년대의 히피문화, 전위예술, 행위예술, 게이문화 등의 발상지이자 집합지로서 현대예술의 선구적 역할을 하여왔다.

이러한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에는 현대예술의 중심지로서의 도시 이미지와 잘 맞는 독특한 외관의 현대 건축물이 항구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대리석과 붉은 벽돌이 이루는 기하학적 형태의 육중하고 강한 느낌의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1995년 1월 18일 새롭게 문을 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장려한 외관과 시선을 끄는 대담하고 현대적인 구조로서 건축사에 길이 남을만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전신은 1935년 1월 18일 문을 연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이었는데 이는 당시로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미술 재단이였다.

이후 폴 세잔느, 앙리 마티스, 잭슨 폴락, 클리포드 스틸, 마크 로스코, 폴 클레 등 현대 미술 거장들의 컬렉션을 갖추면서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은 미국 현대미술의 주도적 위치에 세계 되었다. 또 1960~1970년대에는 엔젤 아담스, 윈 벌록, 아론 시스킨드, 에드워드 웨스턴 등 사진가들의 작품이



03



02



04

- 01. 미술관 건너편에 있는 아트센터 바닥에 방문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다.
- 02. 멋진 대리석 바닥으로 마감된 미술관의 로비.
- 03. 미국 현대회화를 소장한 전시실.
- 04. 조형미가 넘치는 아트센터 분수.

모이면서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은 사진작품들의 컬렉션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소장품의 증가에 따른 방안 마련과 현대미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술관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술관 건축을 고려하게 되었고, 스위스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가 새로운 미술관의 설계를 맡게 되었다. 미술관 설계자인 마리오 보타가 그의 첫 번째 미국 내 건축 작품이자 그로서는 최초의 미술관 건축 작품으로 선보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이란 예술품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는 그의 이상을 실현한 장이 되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가 마리아 보타

보타는 건축가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장 현대적인 양식의 건축물로 실현시켰을 뿐 아니라 날카로운 직관력을 공간과 각 요소, 작품들 속에까지 이입시켰다. 1943년 스위스의 메드리시오에서 태어난 마리오 보타는 15세부터 건축을 공부하였으며 이태리 베니스의 건축 대학을 거쳐 젊은 시절 이미 수많은 세계 건축 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가장 활발히 활동하

는 건축가로서 건축물의 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다.

“무릇 건축가의 사명은 오늘날의 진보된 테크닉과 새로운 자재,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건축에 접목시키는 고도의 산업 정보를 풍요로운 생활과 지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축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러한 건축가로서의 신념은 개념적이며 추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 완성된 건축물에서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의 건축물은 강력한 기하학적인 외관과 축을 중심으로 하는 정확한 대칭의 형태를 하고 있다. 소재는 전통적인 벽돌, 대리석, 화강암을 사용하는데 이는 스위스 남부와 이태리 북부의 클래식한 대리석 건축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보타는 가장 클래식한 소재를 사용하여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을 창조하여 왔다.

미술관 설계자인 마리오 보타가 그의 첫 번째 미국 내 건축 작품이자 그로서는 최초의 미술관 건축 작품으로 선보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이란 예술품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는 그의 이상을 실현한 장이 되었다.



01



02



03



04

지성과 미, 새로움과 낡은 것이 공존하는 공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정확한 대칭형을 하고 있다. 전체가 기하학적인 구조로 전통적 소재인 벽돌, 화강암, 대리석을 사용한 단순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주는 초현대적 건축물이다. 중심을 이루는 실린더형의 탑 윗부분은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보타의 전형적 스타일인 흰

색과 검정 색의 화강암 띠로 처리되어 있다. 미술관의 상징인 이 탑은 낮에는 원형 창을 통해 태양광선이 들어와 실내 벽과 바닥을 통해 반사되어 5개 층의 전시실을 부드럽게 밝혀 주며, 밤이면 아름다운 조명을 비추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밤을 장식한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비추는 태양 빛을 느낄 수 있는데, 1층에서 위를 바라보면 둥근 창과 5층의 갤러리를 가로지르는 하얀색 철골 다리를 볼 수 있다.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이 다리는 창에서 내리비치는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격자형의 그림자를 아래층 흰 벽으로 보내 장식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미술관 1층에는 티켓부스와 인포메이션 코너, 극장, 서점이 자리 잡고 있고 2층 갤러리에는 20세기 현대 회화, 조각, 건축,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에는 사진작품, 종이를 사용한 작품, 그리고 특별히 사이즈가 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4층은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외부의 테라스에는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5층에는 특별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마리오 보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술품과 그것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은 관람객들의 지적·시각적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출되어야 한다.”

물밑 듯이 밀어닥치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컴퓨터 모니터 안이 아닌 실제 자신들의 눈과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적 대상물, 즉 미술품 같은 것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미술품을 통해 현대인을 만족시켜줄 공간은 사회와 문화 시스템의 변화와 발달에 맞추어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공간이 수백 년 전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느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리오 보타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통해 잘 말해 주고 있다. 📍

- 01. 미술관 중앙을 형성하는 원통형 구조물.
- 02. 외부의 빛을 받아들이는 원형의 탑 내부를 관람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 03. 미술관 1층에 마련된 기념품점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 04. 실린더형 탑 내부의 유리바닥과 철제 다리.

자연을 담은 집



마당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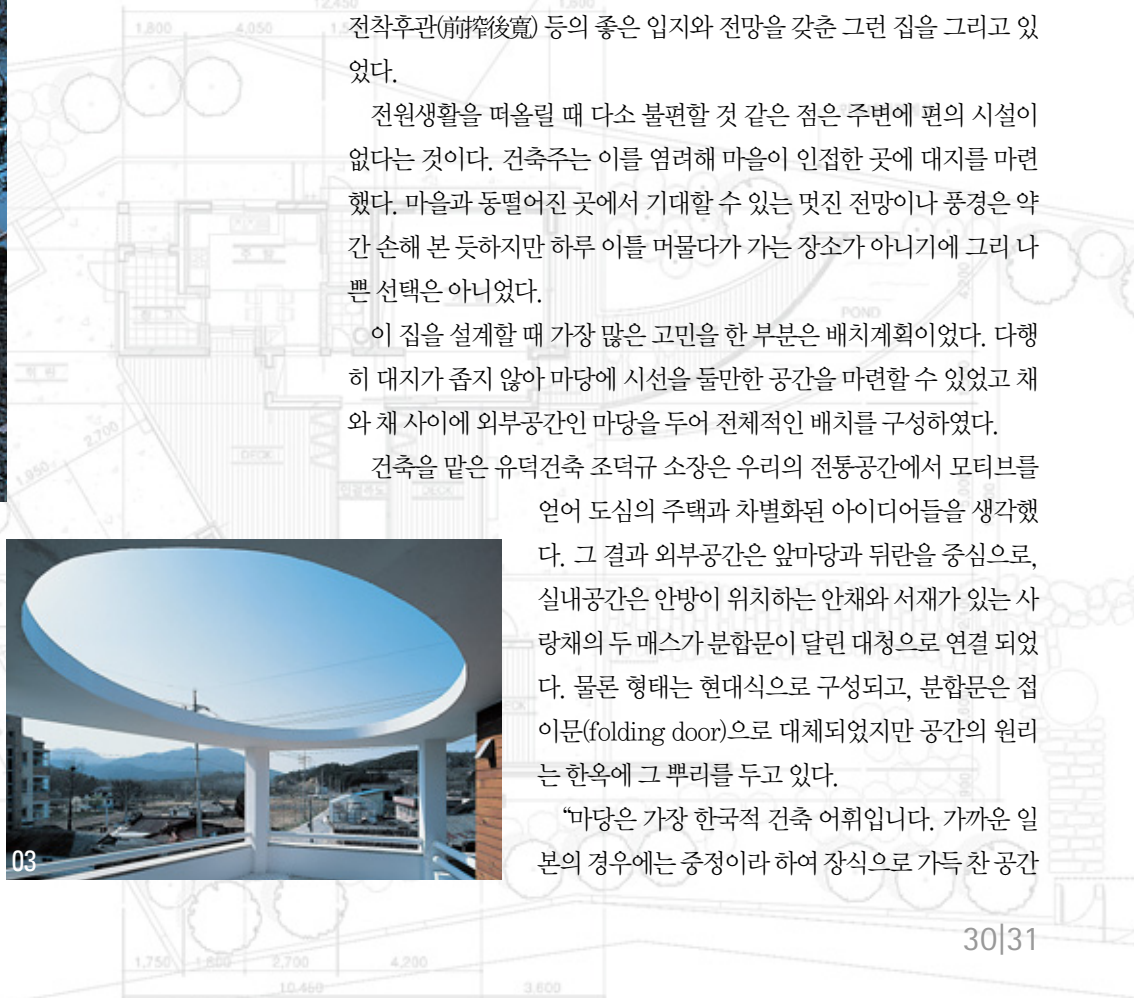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뒤란이 있는 집' 건축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터라 전원주택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도시와 다른 분위기의 전원주택을 구상하고 있던 건축주는 막연히 '좋은 집, 멋진 집'을 짓기 원했다. 이를테면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전착후관(前窄後寬) 등의 좋은 입지와 전망을 갖춘 그런 집을 그리고 있었다.

전원생활을 떠올릴 때 다소 불편할 것 같은 점은 주변에 편의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건축주는 이를 염려해 마을이 인접한 곳에 대지를 마련했다.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멋진 전망이나 풍경은 약간 손해 본 듯하지만 하루 이를 머물다가 가는 장소가 아니기에 그리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 집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은 배치계획이었다. 다행히 대지가 좁지 않아 마당에 시선을 들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고 채와 채 사이에 외부공간인 마당을 두어 전체적인 배치를 구성하였다.

건축을 맡은 유덕건축 조덕규 소장은 우리의 전통공간에서 모티브를 얻어 도심의 주택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들을 생각했다. 그 결과 외부공간은 앞마당과 뒤란을 중심으로, 실내공간은 안방이 위치하는 안채와 서재가 있는 사랑채의 두 매스가 분합문이 달린 대청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형태는 현대식으로 구성되고, 분합문은 접이문(folding door)으로 대체되었지만 공간의 원리는 한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마당은 가장 한국적 건축 어휘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중정이라 하여 장식적으로 가득 찬 공간



- 01. 담소를 나누거나 차 한 잔 즐길 수 있는 아담한 뒤란.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복도의 분합문을 펼치면 앞마당과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 02. 적삼목과 석재가 어우러진 뒤란이 있는 집 전경.
- 03. 원형의 개구부가 툇보이는 2층 정자.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원형과 시각 프레임에 담아 감상할 수 있다.

뒤란이 있는 집

도심 주택은 갈수록 여유 있는 외부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한 뼘만큼 작은 마당이라도 가꾸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바람이다. 경기도 가평에 마련한 '뒤란이 있는 집'은 이런 바람이 그대로 실현되는 곳이다. 마당 전체가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소박한 공간을 소개한다.

글 _ 이 일 자유기고가 · 사진 _ 건축가 제공



01

01.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데크를 두었다.
02. 앞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03. 거실과 부부침실이 있는 안채를 바라본 모습.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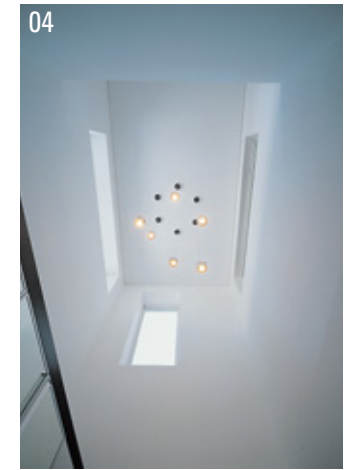
01



02



03



04

01 03.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모던한 느낌으로 처리하고 곳곳에 이색적인 조명으로 장식했다.
02. 실내 곳곳에서 주변 경관을 바라 볼 수 있도록 창을 두었다. 그리고 천장을 따라 길게 낸 창은 채광에도 효과적이다.
04. 세련된 조명으로 장식한 계단실 천장.

이 있지만 우리의 마당은 생활을 담아내는 용도가 다양한 공간입니다. 비워놓음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장소이죠. 이러한 가변성은 뒤란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건축주는 뒤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고기를 굽고 담소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조 소장은 전한다.

또한 부부침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연출하기 위해 안채와 사랑채로 구별해 동선을 최대한으로 길게 했다. 그리고 2층에 배치한 서재와 정자는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특히 현대화된 정자는 오픈 스페이스로 처리하였고, 서재에는 코너창을 두어 실내에서 자연을 항상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뒤란이 있는 집은 돌과 나무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한 자연친화적인 집이다. 주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입구에 식재된 소나무와 돌담 역시 자연미를 더해주고 있다. 적삼목은 주로 외장재로 쓰이는 목재로 불임을 달리해 다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삶의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뒤란

예전 길쭉의 나뭇단을 쌓아놓은 형태를 보고 그 집주인이나 머슴이

부지런한지, 기운이 장사인지, 성격이 꼼꼼한지를 가능했던 것처럼 담장의 재료와 디자인이 그 집의 분위기와 성격을 나타낼 수 있기에 건축가는 담장 건축에 신중을 기했다.

무엇보다 건축주는 뒤란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는데, 요사이 집에서 사라지고 있는 뒤란을 넉넉하게 마련하고 뒷마루와 뒤란을 직접 연결해 변화된 모습과 새로운 기능으로 재탄생시켰다. 뒤란은 넉넉한 삶을 위한 푸근한 안식처의 기능을 하며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이 집을 정의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조덕규 소장은 “주거공간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공간들은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한 뼘만 더 크거나 작았으면 적당했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발코니와 같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공간은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조건 등에 매여 쓸모없는 공간으로 두고 보는 것보다 조금의 노력으로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이 채워지는 뒤란처럼 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빛으로 사랑을 그린다



(1606~1669) Rembrandt

글_ 조용훈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렘브란트 하우스가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찾아서

새벽부터 차창을 때리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냉기가 피부를 잔뜩 긴장시킨다. 베를린에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밤기차에서 악몽에 시달렸다. 암스테르담 도착 예정 시간인 오전 6시 59분은 훨씬 지났으나 중앙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연착이다. 뭐 바쁠 것이 있느냐는 듯 기차는 속도를 늦추었다. 차창으로 별안간 등장한 평원속 풍차가 이곳이 네덜란드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마침내 7시 40분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도착했다. 연착과 흐린 날씨로 지치고 다소 짜증스러웠으나 아름다운 운하를 보자마자 곧 생기를 찾았다. 아름다운 암스테르담은 렘브란트, 고흐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 어느 꽃보다도 찬란하다. 암스테르

담에 온 것은 렘브란트 하우스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렘브란트 하우스는 네덜란드 회화의 핫볼로 지칭되는 렘브란트가, 1639년부터 1658년까지 생활했던 곳이다. 비록 그의 출생지는 레이덴이지만 그의 영광과 실패는 암스테르담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1606년 렘브란트 반 레인은 네덜란드의 레이덴에서 1606년 아홉 명의 아들 중 여덟째로 출생했다. 아버지 하르만 헤리츠존 반 레인은 제분업자였고 어머니 코르넬리아 빌렘스도히테르 반 소이트부르크는 제빵업자의 딸이었다. 이로 미루어 렘브란트가 풍족한 유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렘브란트는 유년기부터 화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며 주목을 받았다. 레이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적으로 그림에 몰두했던 그의

필자 소개 _ 조용훈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 현대시를 전공했고 그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시와 그림이라는 친연한 두 예술 장르를 문화 주제론적으로 통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이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역임하고 있으며 <탐미의 시대> <시와 그림의 황홀경> <근대시인연구>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батсеба 1654, 유화, 142x142cm, 파리, 루브르 미술관

재능을 간파한 부모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레이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진출하며 본격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932년 무렵, 20대 후반이었다. 그림에 전념하자 그는 일취월장했고 암스테르담에서 그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잘 보존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렘브란트 하우스는 그의 빛나는 회화적 재능을 잘 확인시켜 준다. 세월이 흔적에 묻혀있던 그의 에칭과 덧상이 숨죽이고 있다가 불쑥 다가온다. 세밀하고 치밀한 그의 덧상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치밀해서 에칭화를 바라 보는 것만으로 눈의 피로가 가중될 정도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장기는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는 초상화에서 빛을 발한다. 일테면 <батсе바>가 그것이다. 그림의 모델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헨드리케였다. 이번엔 그림 속 여성을 통해 그의 애정관을 읽는 기회를 갖기로 하자. 흥미로운 것이다.

터질 듯한 아름다움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한 <батсе바>

돌팔매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작시킨 영웅 다윗. 어느 날 저녁 그는 궁전의 옥상을 거닐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다. батсе바. 우리야의 아내. 그녀는 목욕 중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몸매가 눈부시게 빛났다. 수줍은 듯 그러나 몸을 정갈하게 가꾸는 그녀의 순결하고 청초한 자태가 다윗의 혼을 빼앗았다. 다윗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우리야의 아

내라는 사실을 부하로부터 들었으나 녀 나간 그에게 남편의 존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욕정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그는 신하를 시켜 그녀를 초대하는 서한을 батсе바에게 전달토록 명령했다.

батсе바는 왕의 편지를 읽고 수심에 잠겼다. 그녀의 오른팔이 저도 모르게 맥없이 툭 떨어졌다. 편지가 그녀의 손끝을 벗어나려는 순간, 꿈이길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편지를 꼬옥 잡았다. 왼손은 두려움에 무너지는 그녀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맑고 아름다운 батсе바의 눈망울이 잔뜩 수심에 차있다. 두려운 눈, 잘생긴 이마와 오탁한 콧날, 다문 입술, 그리고 서한의 함축성을 간파하여 왼쪽으로 기운 몸 등은 황당한 사건에 직면한 그녀의 망설임과 주저, 불안과 공포를 잘 드러낸다.

렘브란트는 그녀의 풍만한 육체를 눈부시게 부각하기 위해 배경을 어둠 속에 묻었다. 흰 목욕가운은 그녀의 우윳빛 젖가슴에서 아랫배로 미끄러지는 빛과 만나 그녀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명암대비 탓에 어두운 배경은 마치 그녀의 순백한 아름다운 몸을 약탈하는 포탈자 같다. 렘브란트는 빛의 대비로 батсе바의 두려움은 물론 그녀의 아름다운 몸 역시 맘껏 드러냈던 것이다. 빛과 어둠으로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는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다. 다윗을 홀린 그 몸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언급한 것처럼 батсе바는, 아내 사스키아가 생을 접은 후에 사랑했던 여인 헨드리케였고, 자신 역시 그녀의 매혹적인 몸에 빠져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



목욕하는 디아나 그리고 악타이온과 칼리스토의 이야기 1634, 유화, 73.5×93.5cm, 이셀 보르크 바세르부르크 안홀트 미술관



사로잡힌 삼손 1636, 유화, 206×276cm, 프랑크푸르트 시립미술관

온다. 풍성한 그녀의 젖가슴은 따뜻한 광선에 의해 터질 듯 약동한다.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듯 흐르는 베일은 렘브란트의 손 같다. 은폐와 노출 속에 짜릿한 전율이 숨어 있다. 20대 후반의 헨드리케는 렘브란트의 애정 어린 붓에 의해 이렇게 터질 듯한 아름다움으로 화면을 장악했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대변했던 그의 작품들

이 대목에 이르면 사스키아와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속설에 회의가 간다. 이 점에 주목한 클라크는 렘브란트가 결혼 후, 야심 많은 여성에 의해 파멸당하는 남성의 모티프인 '삼손'과 '데릴라'에 유독 집착하고(〈삼손과 데릴라〉), 사별 후 상처(喪妻)의 그림자 없이 오히려 만족해하는 자화상을 그린 것에 주목하고 행복한 결혼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스키아는 방앗간 아들 렘브란트가 지참금의 원금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오만했고 자부심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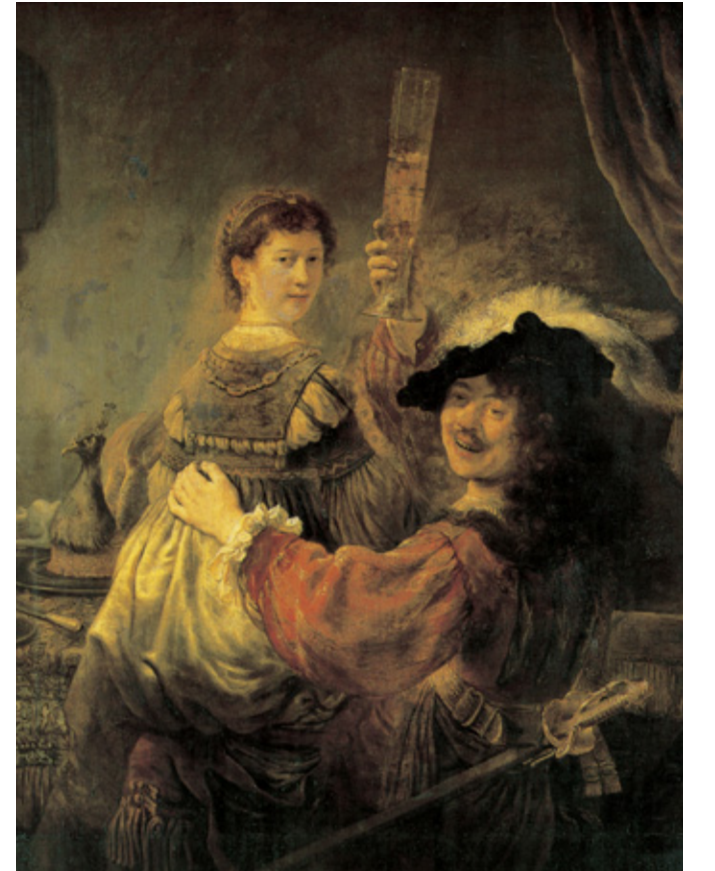
클라크는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자화상〉에서 아내에 대한 렘브란트의 불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를 안고 잔을 들어 축배를 권하지만 취기로 표정이 일그러졌고 험클어진 몸은 기품 있고 당당한 풍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애써 웃으려 하지만 불쾌감과 오만을 노출한 사스키아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렘브란트가 재력가의 딸 사스키아와 1634년 결혼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 그는 자신의 불행한 말년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만족했고 순간을 즐겼다. 부와 명성을 쾌락처럼 향유했다. 재산을 낭비하고 젊음을 탕진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우려와 걱정도 거부했다. 그러나 자기 방기는 불행을 자초했다. 렘브란트는 계속 3명의 아이를 잃었다. 아내 사스키아는 상심으로 우울했고 수척해졌다. 네 번째 아이만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아이의 생명과 아내의 목숨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아내는 짧은 생애를 마쳤다. 아내의 사후, 상황은 보다 열악해졌다. 그의 혁신적인 초상화 기법은 무지한 사람들의 원성을 사서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던 것이다.

위대하지만 외로웠던 영혼

렘브란트는 명예보다는 회화를 선도한다며 난관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보다 악화됐다. 사람들은 그의 방탕하고 무분별한 생활태도를 비난했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헨드리케와의 관계, 즉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유를 법정에서 해명해야 하는 각종 주문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레셀까. 〈밧세바〉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의 순결한 영혼을 갈취한 다윗의 작태는,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종교적 권위와 횡포에 대한 비유로 읽힌다.

렘브란트가 헨드리케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 이유는 사스키아의 유언 때문이다. 그녀는 렘브란트가 재혼하면 자신의 유산을 렘



들어온 탕자의 옷을 입고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자화상 1635, 유화, 161×131cm,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독일

브란트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던 것이다. 그녀는 렘브란트가 유산을 차지하고 네 번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까 두려웠던 것이다.

아내의 사후 렘브란트는 빗쟁이에 시달렸고 그의 물건은 경매에 처분됐다. 그리고 파산했다. 치친 그의 영혼을 위로했던 헨드리케도 1663년 생을 마쳤다. 헨드리케 사후에 그린 〈유태인 부부〉는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부부의 정을 안타깝게 담아낸 것 같아 회환에 젖게 한다. 아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남편과, 그 손을 수줍게 어루만지는 아내에게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농도가 감지된다. 그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으로 그 사랑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뢰와 애정을 주고받는 부부의 모습에서 헨드리케를 잃은 렘브란트의 참혹함을 읽게 된다.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헨드리케의 죽음은 삶의 의미마저 박탈했을 것이다. 상처투성이었던 그는 1669년 10월 4일, 돌보는 사람 없이 행려병자처럼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가 남긴 100여 점의 자화상을 비롯, 사스키아와 헨드리케의 초상은, 불행한 결혼과 행복한 동거, 혹은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화가와 안주하는 화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때 행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듯 하다. 올해는 렘브란트 탄생 400주년의 해이다. 여유가 된다면 암스테르담을 방문해서, 위대하지만 외로웠던 그의 영혼과 대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체인징 마인드〉 〈플로우〉 〈몰입의 경영〉

글 _ 공병호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책 속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은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비교적 다독을 즐기는 필자는 경제경영서 뿐만 아니라 인문서도 열심히 보는 측에 속한다. 인문서는 경제경영서가 제공할 수 없는 깊고 담백한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자주 읽는 책의 장르이다. 내가 지금 소개하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40대에 접하는 책치고 그런 감흥을 줄 수 있는 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즐거움과 유익함이란 측면에서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작품들이다.

심리학 분야에서 하버드대학의 교수로 있는 하워드 가드너 씨는 다중지능이론으로 유명한 학자이다. 그가 내놓은 보기 드문 대중서 가운데 〈체인징 마인드〉(재인)란 책이 있다. 그리고 그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왕성한 연구를 내놓았던 인물 가운데 평생 동안 몰입 분야를 연구해 온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있다. 그의 저서들은 여러 권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유독 필자의 눈길을 끌었던 책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플로우(flow)〉(한울림)이라는 책이다. 두 사람의 연구서는 인문학 위기의 소리가 드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인문학이 한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우선 하워드 가드너의 작품은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된다. 저자는 대통령으로부터 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더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리더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과연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잘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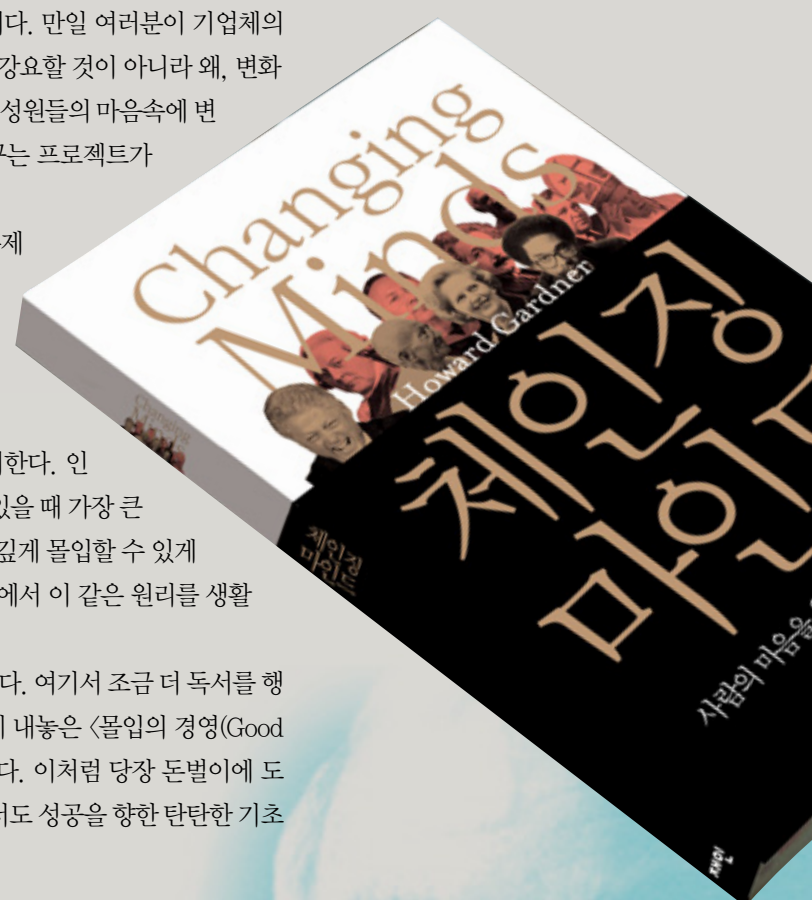
서점가에 쏟아져 나오는 리더십에 대한 다른 책들과 달리 하워드 가드너의 저서는 리더십을 새로운 측면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도록 유도함으로써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 위에 리더십의 구축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이를 테면 탁월한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때 인간이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스토리 즉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여러분이 기업체의 간부이거나 CEO라면 관심 있게 들어두어야 할 대목이다. 변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를 이야기로 찬찬히 들려주라. 그때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마인드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시작됨을 뜻한다.

한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직원들이 행복하면 그들은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데 열심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두둑한 보수를 지불하는 일이나, 멋진 복지후생을 제공하는 것도 잠시 동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답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근본적인 답을 제시한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을 특정 목표에 조준하여 배분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일에 깊게 몰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에 조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원리를 생활화한다면 행복과 성과를 모두 최대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심리학계의 대가들로부터 우리는 한수 배움을 청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독서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2003년에 내놓은 〈몰입의 경영(Good Business)〉(황금가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당장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문학 관련서에 대한 독서도 성공을 향한 탄탄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공병호 소장은 현재 (주)교보생명 사외이사와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치밀한 분석과 명쾌한 논리로 경제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성공전략을 전파해 온 공병호 소장은 연간 300회 이상의 강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송 활동과 경영자문, 그리고 중고교생과 일반인을 위한 '공병호의 자기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변화관리, 경제경영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양시 성사동 숲 속에 패밀리 레스토랑 '오월의 향기'를 운영하며, 또 다른 삶에 도전하고 있다.
〈10년 법칙〉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SELF-MANAGEMENT: Howto-Book) 〈10년 후, 한국〉(10년 후, 세계) 〈한국, 변명의 길〉 〈공병호의 독서노트〉 〈핵심만 골라 읽는 실용독서의 기술〉 등 지금까지 70여 권의 저서와 역서를 발간하며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겨울감기 내치기

아무리 무서운 질병도 예방을 통해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좋다. 하지만 우습게 보다 큰 코 다치는 병이 있다. 바로 감기다. 감기는 아무리 조심해도 1년에 평균 3~6회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가장 흔한 병이면서도 건강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감기. 올 겨울 감기로부터 멀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글_ 이균 건강칼럼니스트

감기가 무서운 이유 ** 계절이 바뀌면서 때가 되면 왔다가 며칠 고생하면 가는 것이 감기라고 알고 있다. 오죽하면 “병원을 가도 일주일, 안가도 일주일은 앓아야 떨어진다”고 흔히 말한다. 이렇다 보니 감기를 자칫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는 말도 명심해야 한다. 며칠 끄꿍 앓고 나면 감기는 떠나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기는 사실 계절이 없다. 흔히들 겨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름감기부터 환절기 감기까지 계절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감기다. 그렇다보니 감기의 종류도 다양하다. 감기몸살에서부터 코감기, 목감기, 두통감기, 편도선염 등 우리가 감기라고 표현하는 많은 고통이 있다.

감기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무리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발전한다. 젊은 사람에게도 중대한 질병이지만, 노인이나 아기에게는 목숨을 빼앗아 갈 우려가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폐렴, 기관지염이 아기들과 노인들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무서움을 말해 주고 있다. 사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들 중에는 무서운 질환들이 있다. 결핵, 폐암, 기관지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 호흡기 질병의 대부분이 감기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증상을 동반한다. 이런 중대한 질병들을 감기라고 생각하여 그냥 방치해 두고 말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기회를 뺏기고 있으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손 관리를 잘하라 ** 감기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전염병이 손을 통해 대부분 옮겨진다. 따라서 손만 잘 관리해도 감기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손을 관리하는 것은 잘 씻는 것이다. 막연하게 비누칠을 했다고 손을 잘 씻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씻어야 할 때와 손 세척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손 씻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에서 도착해서 점심을 먹기 전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친 후 그리고 집에 와서 손을 바르게 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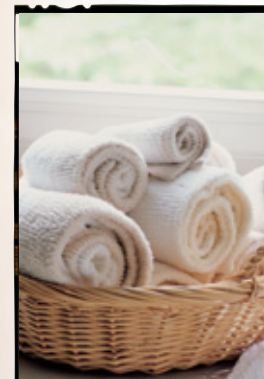
올바른 손 씻는 방법은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손을 닦을 때 비누로 손을 골고루 문지르는 것이 중요하다.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부위 등을 골고루 닦아야 한다. ▲가능하면 휴지수건을 이용하여 손의 물기를 닦는다. ▲물 잠그는 것도 닦은 휴지수건을 이용하면 완벽히 깨끗한 손을 만들 수 있다.

감기바이러스 옮기는 물건들 ** 감기바이러스들은 집안 곳곳에 있다가 대부분 손을 통해 옮겨져 사람들을 괴롭힌다. 가족 중 감기환자가 있을 때 접촉을 피해야만 할 집안 집기들은 무엇일까.

최근 미국 버지니아의대 연구팀이 감기환자 15명을 호텔에서 하룻밤 묵게 한 뒤 조사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전등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TV리모컨, 전화기, 펜(Pen), 샤워커튼, 커피메이커, 알람시계 등이었다. 모두가 손이 쉽게 가는 물건들이다.

실험자들이 호텔방을 나선지 1시간 후에는 60%, 24시간 후에는 33%의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감기환자가 접촉한 전등 스위치를 만진 뒤 그 손을 코나 눈에 갖다 대면 감기에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감기바이러스들이 득실거리는 집기들 모두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 이제야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상적인 영업기획·관리팀

이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런 조직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그저 이론 속에서만 있을 것 같은 이상적인 조직을 바로 삼천당제약에서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런 행운을 안겨준 영업기획·관리팀의 훌륭한 리더와 똑똑한 팀원들을 만나 이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글 _ CSD · 사진 _ 장윤호 스튜디오 웃



김재성 대리



장세환 사원



장연주 사원



오성룡 부장

언제부터가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조직문화의 이슈로 회자되고 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인데, 서점가의 관련서적, 학자들의 연구결과, 기업의 사례분석 등 각종 자료들이 말해주는 공통된 결론은 조금은 원론적이지만 '우두머리'와 '조직원' 모두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경쟁력을 갖춘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

'리더'에 대해 앞서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삼천당제약 영업기획·관리팀원과 팀을 이끌고 있는 오성룡 부장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직급을 떠나 맡은 직책을 충실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죠.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누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길 바라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본인이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팀원들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오성룡 부장은 "제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일을 척척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하며 허허 웃어 보인다.

그는 능동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인다.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업무 효율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그.

잠시 후 영업기획·관리팀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성룡 부장의 대관업무를 보좌하고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연주 사원, 영업관리팀 중간관리자로 영업지원 활동과 관리를 체크하는 김재성 대리, 영업경비를 체크하고 사전·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세환 사원, 주문서 관리를 담당하는 김

정은 사원, 영업 사후관리와 거래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이춘미 사원이 오성룡 부장이 이야기 하는 '우리 아이들'이다.


"부장님은 불화를 제일 싫어하세요. 일을 책임지고 똑 부러지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화합하고 양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죠."

부장님의 평소 바람을 얘기하는 김재성 대리. 팀워크를 중시한다는 팀원을 말처럼 그들에게는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환하게 웃음을 터트리는 남다른 화기애애함이 있었다. 김재성 대리는 이어서 "업무에 대해 전권을 부여받은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한 순간도 대강대강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훌쩍 커 있더군요. 맡은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커졌고요."라고 속내를 내비친다.

"전국 영업지점을 상대하다보니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어 가끔 힘들지만 일을 해결해 가면서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장세환 사원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수줍은 듯 미소만 짓고 있던 정연주, 김정은, 이춘미 사원에게 영업기획·관리팀의 최근 팀 분위기는 어떠냐고 묻자 "저희 팀은 모두 아침형 인간이에요. 출근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해 여유롭게 차 한 잔 하면서 팀원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날 할 일을 정리하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씩 바꿔가고 이뤄간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끝나고 사진 촬영에 들어가자 "우리 아이들 위주로 찍어주세요. 난 저기 구석에 나와도 되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라며 뒤로 살짝 물러서며 팀원들을 앞세우는 오성룡 부장.

민어주고 아껴주는 리더가 있기에, 밝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팀원이 있기에 이들은 모두 주인공처럼 빛나 보이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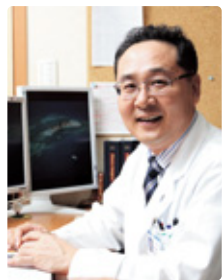
이춘미 사원



김정은 사원

남는 지방으로 주름을 없애는 미세지방이식

어려보이는 외모와 날씬하고 탄력적인 몸매는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매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얼굴의 주름이 심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자기 몸속에서 남는 지방을 채취해 필요한 부위에 주입해 주름을 교정할 수 있는 미세지방이식술을 소개한다.



글 정찬민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과장



자 기지방이식술은 오래전부터 시술되어 왔던 방법으로 1800년대 후반 이래로 성형외과 수술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 illouz에 의해 최초로 지방 흡입술 때 뽑은 지방으로 몸의 함몰 부위를 교정하였고, 1986년 Fournier에 의해 '미세지방 이식술'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지방이식과는 달리 이상적인 자기 지방이식을 위해 고안된 '미세지방 이식술'은 2mm 이하의 지방조직을 손상 없이 채취를 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무균조작을 통해 이식 지방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흡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울퉁불퉁함을 방지하여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아랫배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등에 쌓인 여유 있는 지방을 지방 흡입의 형태로 채취하기 때문에 체형교정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시술전
시술후
입술에 자기 몸속의 남는 지방을 이식해 더욱 도톰하고 생기 있게 교정한 모습.

미세지방이식의 장점과 단점 ** 미세지방 이식술은 이식이 필요한

부분에 아주 조그마한 절개나 바늘구멍으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으며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물질 주입 시 우려되는 독성 및 발암성, 과민반응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인조 충전 물질(아테콜, 주비덤 등)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원하는 만큼의 지방 조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유방 확대 또는 힙업과 같이 많은 양의 이식이 필요한 분야 또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교정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은 대부분 부분마취 하에서 이루어져 환자에게 부담이 적으며 절개의 과정이 없으므로 시술이 매우 간단하고 회복기간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미세지방이식술의 단점은 이식된 지방조직이 일부 흡수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흡수가 될 것을 예상해 교정이 필요한 부위보다 과교정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혹은 부위에 따라 지방의 흡수가 빠른 경우 2차, 3차 시술과 같이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다.

2차 혹은 3차 시술시 1차 시술 후 남는 지방을 냉동해 사용할 수도 있으나 지방의 부패나 염증이 염려될 때에는 그때그때 신선한 지방을 새롭게 채취하여 사용한다. 이식된 미세지방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입자의 크기, 수혜부의 혈행 상태, 공여부의 상태, 흡연 및 복약 여부, 채취와 주입사이의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술의 방법에 의해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숙련된 시술이 요구된다.

정찬민 ● 1986년 경희의대 졸업 ● 1999년 Plastic surgery center of pacific 연수 ● 1999년 정찬민의 아름다운 성형외과 원장
● 2003년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과장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IRPAS정회원
●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화상학회 정회원 ● 대한수부외과학회 정회원 ● 미국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미세지방이식이 적용 가능한 부위와 효과 ** 미세지방 이식술은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안면부만 하더라도 함몰된 뺨의 교정, 팔자주름의 교정, 반듯한 이마 모양으로의 교정, 도톰한 입술 모양으로 교정, 함몰된 눈꺼풀의 교정, 다크써클 교정 등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움푹 파인 뺨은 보는 이로 하여금 빈약하고 가난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대뼈를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함몰된 뺨에 미세지방 이식술을 적용한 경우 적절하게 도톰한 뺨을 가지게 할 수 있어 여성의 경우 좀더 어려보이고 귀여운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여유 있고 원만한 느낌을 주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얼굴의 피부와 근육 등의 조직이 중력에 의해 처지고 입가주름 밑의 지방층이 더 위축되면 입가 옆으로 팔자 모양의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입가 주름의 함몰정도가 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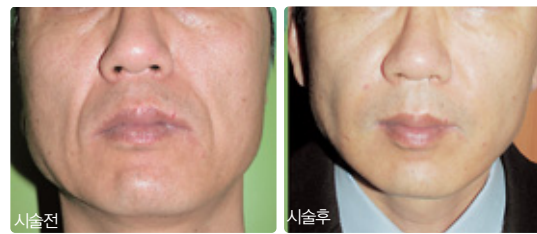
다면 많은 양을 주입할 수 있는 자가 지방을 이용한 교정이 바람직하다. 팔자주름의 교정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에서 젊은 인상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마가 함몰되었거나 뒤로 후퇴된 경우 얼굴의 입체감을 상실하여 반듯한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마에 자가 지방을 이식함으로써 편평하고 반듯한 형태로의 교정이 가능하다.

입술의 경우 그 크기를 1mm 만 바꾸어도 전체의 인상이 달라질 정도로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최근 젊은 여성이 선호하는 두툼하고 섹시한 입술 모양으로의 교정이 가능하며 나이가 들어 주름진 입술의 경우에도 젊은 사람의 입술처럼 팽팽한 모양으로의 교정이 가능하다.

윗 눈꺼풀이 쑥 들어가 있는 경우 피곤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지방이식을 통해 꺼진 눈꺼풀을 도톰하게 할 수 있다. 눈 아래 다크써클이 있을 때도 튀어나온 지방은 제거하고 들어간 부분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 눈 밑에 그늘진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애교살을 만들 수도 있다. 최근에는 대량의 지방조직 이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방확대, 처진 엉덩이의 교정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시술 받은 후 주의사항 및 시술 부위 관리 요령 ** 미세지방이식술의 결과는 이식된 지방의 생착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식된 지방의 생착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식된 지방조직이 괴사될 수 있으므로 약 5일 정도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음주는 약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것이 좋다. 흡연은 이식 부위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생착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지방이 이식되기 위해서는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 이식 부위를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 교정된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식된 지방이 흡수될 수 있다. 잠을 잘 때에도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서 잘 경우 지방이 눌러서 모양이 변형되거나 흡수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채취를 한 부위는 약 2주간 압박 속옷 등으로 압박을 해주는 것이 멍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채취 부위에 멍과 붓기가 오래갈 수 있으므로 1~2주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



미세지방이식술로 팔자주름을 교정해 한결 젊어진 모습이 되었다.

미세지방 이식술은 이식이 필요한 부분에 아주 조그마한 절개나 바늘구멍으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거의 남지 않으며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물질 주입 시 우려되는 독성 및 발암성, 과민반응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인조 충전 물질(아테콜, 주비덤 등)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원하는 만큼의 지방 조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유방 확대 또는 힙 업과 같이 많은 양의 이식이 필요한 분야 또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교정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녹내장 치료제 '라티콤 점안액' 출시

라티콤 점안액은 Latanoprost + Timolol 성분의 복합제로 초기 단독요법보다 더 많은 안압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병용요법이 요구될 때에 강력한 안압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상호 보완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는 Latanoprost와 Timolol 복합제는 1일 1회 투여로 최대 48시간까지의 안압강화 지속효과를 볼 수 있으며, Latanoprost 내지는 Timolol 등의 단독요법으로 안압조절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해 강력한 안압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라티콤 한방울의 방부제 함량이 Latanoprost와 Timolol의 각각 제품을 병용할 때보다 적어 방부제로 인한 자극감을 최대한 극소화시켰다. 라티콤 점안액은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2개의 별도 약물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투여할 때 흔히 나타나는 Washout 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안압강화가 요구되는 환자에 최적의 녹내장 치료제이다.

세계처방 1위 경구용 세파 항생제 '세푸로틸 정' 출시

세푸로틸정은 Cefuroxime axetil 300mg성분으로 세계 처방 1위 성분의 경구용 세파 항생제이다.

세푸로틸정은 호흡기 감염균에 대한 활성이 Cefaclor를 능가하고, 호흡기 감염의 주요 원인균인 S. pneumoniae에 대해 Cefixime보다 신속하고 우수한 항균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항균제를 파괴하는 β-lactamases에 안정적이어서 내성균에도 우수한 항균력을 보인다. Pro-drug으로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장 부작용(설사)이 극소화 되었고, 흡수율이 뛰어나고, 높은 생체 이용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1일 2회 요법으로 복용이 간편한 장점 등을 지니고 있다.



노인성 백내장 치료제 '클리드 점안액' 출시

클리드 점안액은 Iodide성분을 기초로 한 백내장 치료제로서 노화·근시·고혈압·당뇨병·정맥주위염으로 인한 출혈, 노인성 백내장 초기증상으로 수정체 혼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제제이다.

클리드 점안액은 요오드에 의한 산화과정으로 수정체 혼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혼탁된 수정체의 축진으로 백내장의 진행 억제 및 시력회복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부형제로서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요오드 이온의 산화를 막아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한다.